

다.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 수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수련과정이란 바로 소업(消業)이며 바로 고생을 겪는 것이다. 당신이 고생을 겪지 않는다면, 그 업을 없애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체상의 그 고통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당신이 생활 속에서 부딪힌 그 번거로운 일, 그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당신이 감당해 냈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다.

우리 사례를 들어 말해 보자. 과거에 불교 중에서 말하기를, 수련이란 많은 고생을 겪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요만한 고생을 겪는 것은 다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미 사부가 있어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에게 많이 없애주었기 때문이다. 생생세세 누군들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말한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른 사람 중에 살생한 적이 없고 큰 업을 빚은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모두 매우 어렵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말해 보자. 그때 당신이 크게 나쁜 짓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얼마나 큰 난(難)을 감당했겠는가? 그런데 당신이 오늘날 요만한 것을 감당하게 되자 당신은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한 뜻을 많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련이라, 곧 오성(悟性)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다 본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역시 수련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경으로 떨어져

제자: 석가모니는 이미 개공했는데 왜 법을 전한 지 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사부: 대단히 높고 대단히 높은 층차에서 온 한 사람, 여래를 몇 배나 능가한 그가 수련한다면 아마 개공한 후 49년이 필요 없으며 그의 절반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더욱 짧은 과정을 거쳐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근기와 관계가 있고 또한 그가 있는 층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가 전세(前世)에 있었던 층차와 아주 큰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마다 모두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것이 아니다.

제자: 석가모니는 49년이란 시간에 여래 층차에 도달했는데 누가 그에게 공을 연화(演化)해 준 것입니까? 그는 돈오(頓悟)에 속합니까, 아니면 점오(漸悟)에 속합니까?

사부: 그는 돈오에 속한다. 그는 사람을 제도하러 온 것이지 수련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누가 그에게 공을 연화(演化)해 주었는가? 누구도 그에게 공을 연화해 주지 않았다. 무릇 내려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려오기 전에 많은 대각자와 공동으로 이 일을 토론하며 그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봐서 정한다. 정해졌다면 바로 계획에 따라 하는데, 어느 때 가서 개공하고, 어느 때 가서 원만하며, 어느 때에 일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이것은 모두 정해 놓은 것이다. 그는 또 우리가 말하는 개공·개오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그리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는 단번에 기억이 열렸고 그가 예전에 자신이 수련하던 것을 상기(想起)하게 되어 그는 그것을 내놓아 사람에게 전하였다. 내가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당시에 전한 법, 종교 중의 법, 불교 중의 법은 높지 않다. 여기에서 석가모니가 높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2500년 전 원시사회에서 갓 벗어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것은 그의 법 전부(全部)가 아니다.

제자: 오로지 가부좌하는 중에서만 비로소 공이 연화되니까? 아니면 心性(썬썬)이 제고되는 동시입니까?

사부: 가부좌하는 중에서, 연공 중에서, 고생을 겪는 중에서, 난(難)을 겪는 중에서 모두 공이 연화된다. 心性(썬썬)이 제고되는 과정에서도 층차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공이 자란다.

제자: 어떤 사람은 관세음이나 또 성불(成佛)했다고 말하는데요?

사부: 남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말법시기에 이르러 인류사회는 각자(覺者)들이 모두 손을 떼고 상관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상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류사회에서 모두 손을 떼고 상관하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領會)이 있고, 또다시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마치 그 글자의 뜻마저 다 달라진 것 같은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모두 이런 감각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책에서 부동한 층차의 것을 결합하여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승화됨에 따라 당신에게는 부동한 인식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법을 아주 착실하게 배우고, 법으로 대조해 간다면 당신은 어떠한 문제든 모두 쉽게 풀 수 있다. 틀림없이 이리하다. 수련문제라면 모두 풀 수 있다.

내 기억에 지난(濟南) 학습반에서 한 강의가 가장 전면적인 것으로서, 많은 문제를 모두 말하였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문제는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뜻은 모두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여러분이 진정하게 배워나갈 수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찌하여 여기가 괴롭고 저기가 괴로우냐고 한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괴롭지 않다면 그것이 아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당신을 돌봐주지 않는 셈이다. 당신이 수련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그 한마디 말인데 그리 쉽지 않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은 모두 업력이 있는데 어찌 갇지 않고 되겠는가? 당신, 이 사람에게서 단번에 무엇이든 모두 없애버리고 당신에게 부처가 되라고 한다면, 당신 이 사람이 어떻게 특수하단 말인가? 나는 곧 이 뜻을 말할 뿐이

답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는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자입니다.”라고 말하라. 이러면 사회에 대한 영향과 우리 대법을 널리 선전하는 데 좋은 점이 있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정법(正法)을 얻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좀 더 낫다. 우리의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에서 공을 배우는 사람이 이미 무척 많아졌는데 이로써 미치는 영향 역시 아주 커졌다. 지금 사회에서는 누가 좋은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레이펑(雷鋒)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사람은 정말로 좋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도 무방하다.

이 기간에 또 일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어떤 수련생은 수련과정 중에 생기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늘 스스로 풀지 못한다. 왜 이러한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데, 믿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내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보도원인 당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면, 당신은 여전히 학습반에서 수련생들이 제기했던 많고도 많은 문제를 제출할 것이다. 왜 이럴 수 있는가? 마치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법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해서다. 왜냐하면, 나는 부동한 층차의 것을 결합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책을 한 번 보고는 대단히 좋다고 여긴다. 그런 다음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걸 중에서 그들의 처지 역시 아주 곤란한 것으로 자신을 돌보기도 모두 바쁘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그런 층차 중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나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상 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말했는데, 나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일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이 부처에게 빌어도 좋고 당신이 여러 가지 종교의 상(像)에 빌어도 좋은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매우 드물게 한 그림자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말걸을 의미하며 이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은 바로 몇 년 전 사람들이 모신 관음보살이다. 공은 실제로 여래불보다 높고, 아미타불(阿彌陀佛)보다도 좀 높다. 왜냐하면, 대보살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여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공은 여래를 능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련한 것이 바로 보살이기 때문인데, 그 자신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 속에는 아주 많은 고심(高深)한 이치가 있고 이런 것은 인류가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역시 속인의 그런 상하급(上下級) 관계가 아니며, 이는 별도의 일이다.

제자: 어떤 사람은 法輪世界(파룬쓰제) 중의 나한과 보살, 심지어 다른 일부까지도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도 높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사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일부 세계의 부처는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 높다는 이것은 맞다. 왜냐하면, 층차 역시 부처가 있는 세계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래 층차의 부처라 하더라도 만약 부처 과위 중에 도달한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면 이러한 사람 역시 높고 낮음이 있다. 전반 法輪世界(파룬쓰제) 역시 모두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法輪世界(파룬쓰제)의 나한, 보살은 다른 세계의 부처보다 높고 法輪世界(파룬쓰제)의 층차는 대단히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오늘날 전한 법은 아주 큰 것으로 法輪世界(파룬쓰제)에만 국한하여 전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알게끔 한 것이 法輪世界(파룬쓰제)이다. 하지만 法輪世界(파룬쓰제)의 것을 벗어난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은 이미 감수하였다. 이 법은 아주 커서 그렇게 많은 대각자가 모두 와서 이 법에 동화하고 있는바, 이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며 사람을 이끌어 아주 높은 데로 수련시키는데, 이 점은 확실하다. 매 개인의 수련이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 역시 확실하다. 석가모니, 아미타불도 누가 그 한 문에서 수련한다고 하여 모두 그의 그곳으로 간다거나 혹은 다른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에게 기공에 대한 인식에서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더는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고층차상 수련이란 이런 문제를 담론한다. 우리는 앞으로 더는 그를 무슨 기공, 기공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 法輪功(파룬궁)은, 물론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불러도 괜찮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본래 파룬슈론파(法輪修煉法), 파룬슈론편(法輪修煉) 또는 파룬슈론파파(法輪修煉大法)라 부른다.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용어에 대한 호칭 문제다. 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각났는데, 우리 많은 수련생은 묵묵히 좋은 일을 하였다. 사회에서, 기타 환경 중에서, 직장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였으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보수를 따지지 않는데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해 나도 알고 있으며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 이 공법이 전해져 나오자 지금 이미 사회에서 인심(人心)이 착해지고 도덕수준이 향상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영향, 이 역시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일부 수련생이 좋은 일을 한 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으며, 사례를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공덕이지 않은가. 내 생각에 당신도 대

의 心性(썬썬)이 올라가지 못하고 법에서 제고되지 못하면 다른 것은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층차를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心性(썬썬)이 올라오지 못하면 층차의 고저를 결정하는 이 공이 없다. 心性(썬썬) 수련이 되지 않으면 공이 없어 에너지의 가지(加持)가 없는데, 당신이 당신의 本體(번티)를 개변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개변할 수 있겠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다. 이처럼 에너지로 가지(加持)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 공부는 극히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수련하는 사람이 책을 좀 많이 본다면 확실히 여러분의 제고가 아주 빠를 것이다. [삽화(插話)-그들은 사부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하면서 스승님께서 앉으셔서 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좀 많은 것을 말해 달라는 것인가(열렬한 박수).

방금은 주로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발전 형세를 말했다. ‘法輪功(파룬궁)’이란 이 용어는 우리가 초기에 베이징(北京)에서 공을 전할 때 불렀던 호칭이다. 내 말은 기공이란 현대인이 창조해 낸 한 가지 용어로서 실질상 기공은 바로 일종 수련이다. 속인 중에 보급한 것은 단지 기공의 가장 낮은 형식의 것이었다. 단지 겨우 인체를 개변하여 연공으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의 것을 전한 데 불과하나, 실질상 그것은 바로 수련이었다. 우리의 공법은 직접 고층차에서 전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수년간 기공을 보급하는 중에서 이미 사람들

그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아마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제자: 나한에 도달하였을 때, 공의 높이는 표준이 있는 것입니까? 초과(初果)나한은 心性(썬썬)과 공의 높이로 결정된 것입니까?

사부: 나한의 층차는 부동한 부처의 세계가 확정한 불변의 표준이다.

수련생의 心性(썬썬) 고저(高低)와 공의 연화 형식 전반은 같은 것으로서 전부 다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는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바, 그것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모두 아주 중하게 강조했는데 보도원은 이러한 문제를 마땅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났다면 바로 불체(佛體)수련이 아닌가?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에서 당신은 불체가 있게 되는데 불체는 고에너지물질로 완전히 대체된 신체이다.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 정백체(淨白體)로 진입함은 전신이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된 투명체(透明體)가 아닌가? 더 앞으로 수련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체가 아닌가. 초과나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하다.

제자: 신체에서 나온 생명체, 예를 들어 용(龍) 등은 육도윤회(六道輪廻) 중에 있습니까?

사부: 육도윤회 중에도 일부 생물이 있고 육도윤회 밖에도

동물이 존재한다. 더욱 높은 층차 중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수련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자연환경 중에서 생겨난 것이다. 고층차에서 수련하는 사람의 신체에서 나온 용(龍) 등의 생명체는 물론 당신의 것이며 또한 당신이 원만함에 따라 고층으로 간다.

제자: 신체에서 나온 생명체는 반드시 어느 한 도(道)를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수도인(修道人)이 전일(專一) 하다면 부처 수련을 해도 됩니까?

사부: 이 문제에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부처 수련을 하든 당신이 또 것처럼 도를 닦든 이는 상관없다. 다만 그 한 문(門)의 사부가 시작할 때에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안 될 때에는 그 역시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확고하여 기어이 수련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상관하지 않는다. 만약 두 척의 배에 발을 딛고 수련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어느 쪽의 사부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心性(썬썬) 문제로서 두 법문(法門)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자: 꼭 사도(邪道)를 수련하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사부: 있다. 전문적으로 말법시기에 나와 법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각종 형식을 채용한 것이 다 있다. 겉으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法輪大法(파룬따파)를 공격하고 나를 공

금 말했지만 각 지역에서 모두 일부 다른 경험도 총결하였는데 아주 좋다. 나는 또한 창춘(長春) 보도소에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경험을 마땅히 전국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련생들이 이렇게 법 공부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 제고가 아주 빨랐으며 층차 제고 역시 아주 빨랐는데, 이는 필연적이다. 우리 여기에 자리한 많은 사람은 연공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은 모두 보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좀 깊이 말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내 책 속의 때 한 글자는, 얇은 층차에서 본다면法輪(파룬)이고, 깊은 층차에서 본다면 그건 바로 나의 법신이다. 심지어 편방(偏旁)과 부수(部首)마저도 모두 단독적으로 당신의 입을 거쳐 읽을 때면 그 역시 같지 않다. 많은 사람은 이미 공을 아주 관찮게 수련해서 읽은 글자는 모두 형상이 있으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法輪(파룬)이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니다. 물론 층차가 모자라면 여전히 안 된다. 당신으로 하여금 책을 읽고 법 공부를 하게끔 하는 자체가 바로 제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心性(썬썬) 수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理性)으로 법을 인식하는 자체 역시 제고이다.

우리는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며, 동작 자체는 주로本體(번티)를 개변하는 일을 한다. 즉 우리 육신의 개변과 각개 공간에 존재하는 그 물질신체의 개변 형식인데, 이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 일부 술류(術類)의 것도 있다. 진정하게 제고되려면 법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만약 우리

련생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다)에 대해 과거의 많은 경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고 모두 아주 모호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외웠다고 한다. 물론 또 다른 표현도 있었다. 나의 뜻은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가 왜 외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제고하기를 요구하는데, 당신이 외운다면 더욱 좋지 않은가? 수시로 대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책 외우기 붐이 일어났다.

지금 창춘(長春)에는 책을 외우는 사람이 만 명도 넘는다. 지금 그들이 법 공부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바로 거기에 앉아서 배우는데, 책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책을 외우다 멈추면 다른 한 사람이 이어서 외우곤 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으며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어서 외운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한 단락 외우고, 그가 한 단락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외우고 있다. 나중에는 또 책을 베끼는 데로 발전했다. 만약 한 글자를 잘못 베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여 다시 베낀다.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수련생의 제고에 대단히 좋은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상 중에 그렇게 깊은 인상이 있으며 행동 중에서 매번 무슨 일을 할 때 모두 연공인의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인데 참으로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나는 우리 수련생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방

격하는 것은 우리 수련생들이 모두 쉽게 변별(辨別)해 낼 수 있다. 이런 마(魔), 그것은 두려울 것이 없고 가짜 기공사 역시 두렵지 않으며 우리 수련생들이 감별(鑒別)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최소한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명백해진 후에는 이전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서 배우지 않을 것이다.

가장 변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마(魔)인데, 파괴력이 아주 크다. 그 마도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러 오고 역시法輪大法(파룬파파)가 좋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욱 격동되게 말하고 감수 역시 다른 사람보다 낮고 또 일부 무슨 형상을 보았다. 그런 후에 그가 단번에 죽어버리거나 혹은 단번에 반면으로 나아가法輪大法(파룬파파)를 파괴한다. 바로 이런 사람을 변별하기가 가장 어렵고, 변별하기 어려우므로 파괴력 또한 가장 크다. 그것의 파괴형식은 바로 그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계끔 잘 배치해 놓은 것으로서, 어떻게 번거로움이 크다면 그는 바로 당신에게 그렇게 해준다. 내가 방금 파괴력이 크다고 말한 마는 바로 이 한 부류에 속한다.

제자: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부처로 수련성취 될 수 있습니까?

사부: 대보살은 이미 부처라고 호칭할 수 있다. 대보살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장왕을 말한 것인가? 지장보살은 다른

사람들도 그를 부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제자: 사람의 元神(웬선)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사부: 이것을 나는 모두 말했다. 원시 생명이란 바로 우주 중의 각종 방대한 물질운동의 작용 하에서 생겨나온 것이다.

제자: 어떤 사람은 골목 소식을 말하는데요?

사부: 다른 사람이 이런 골목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지 말라. 특히 나의 법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 법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전하지 말라. 골목 소식이 당신 거기에까지 전해지면 무시해 버려라. 사람마다 모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전할 곳이 없게 된다.

제자: 타인의 공과(功過)를 평론함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속인 중의 좋고 나쁨, 공로(功)와 과오(過)는 내가 생각하건대 연공인으로서 마땅히 좀 담담히 여겨야 한다. 당신은 속인 중의 일을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담론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속인 중의 일에 흥취를 갖고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수련하려고 하는가? 속인 중에서는 고만한 일일 뿐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속인 중의 일은 별것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그것은 모두 그냥

한 상황인데, 발전 추세 또한 아주 빠를 것이다. 근본원인은 오로지 우리가 사람의 心性(썬썬) 제고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이것은 다만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에 지금 이런 하나의 발전상황이 있음을 간단하게 말했을 뿐이다.

이번 회의는 보도원회의이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이 면의 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각 지역 法輪大法(파룬파파)의 발전상황으로 볼 때 모두 각각 장점이 있으며 또 적지 않은 경험을 총결하였는데, 대법에 대한 학습에서, 수련 중에서 쌓은 경험 또한 적지 않다. 이 기간에 내가 집에 있으면서, 줄곧 창춘(長春)에 있었기 때문에, 창춘(長春)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 비교적 많다. 예컨대 지금 창춘(長春)에서는 법 공부 붐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법 공부 붐인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동작을 연마(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성명쌍수 공법이므로 연마(煉)는 아주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창춘(長春)에서 그들은 이 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쫓쫓이 매일 연공이 끝난 다음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법 공부를 시작한다. 모두 공부를 한 다음 토론을 하는데 한 단락 한 단락씩 토론한다. 나중에 그들은 또 책을 외우는 데로 발전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좋은 것(물론 이것은 수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이 부동(不同)한 수준에서 모두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이른다면,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설령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사회에 유익하다. 그는 명명백백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인데, 나쁜 짓을 하면 그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의 정신문명 확립에 대해, 인류의 도덕수준에 대해 모두 상응하는 제고가 있을 텐데, 이 점은 확실하다. 우리가 이 공을 전하는 것도 사람에게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입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이 점을 해냈고, 대중 속에서, 수련자 속에서 일으킨 영향 또한 비교적 좋았다. 우리는 또 줄곧 이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왔기에 우리 이 공법 역시 잘못 견지 않고 줄곧 이런 순결(純潔)하고 순정(純淨)한 수련상태를 유지해 왔다.

우리 지금 이 형세에 따라 본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장래에 이 공은 더욱 크게 전해질 것이다. 최근, 내년쯤 국외에 공을 전하는 것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외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이다. 국외에서 돌아온 사람이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이 미국의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그 음식점에法輪功(파룬궁)에 대한 현황 소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여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로서 아직 파악하지 못

속인이 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제자: 사람이 개오한 후에는 위로 수련할 방법이 없는지,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개오하고도 왜 여전히 위로 수련할 수 있었습니까?

사부: 사람이 원만하면 위로 수련할 수 없다. 개오란 즉 원만이다. 석가모니는 당시에 반 개오(半開悟) 상태에 처했지만, 그의 기억의 부분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고 많은 것이 열리지 않았으며 그가 아직도 많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위로 수련할 수 있었다. 석가모니가 무엇이나 다 알았다면 그는 위로 수련하기 어렵다. 그가 49년간 법을 전하면서 수련이 여래 층차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달한 반 개오 상태가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사람을 제도하려 온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반 개오는 그렇게 높게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나는 여전히 극소수 사람을 강조하는데 아마 대단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 사람이 죽은 후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元神(웬션)은 제각기 갈 곳으로 간다는데, 왜 조상의 德(덕)과 업력이 자손에게 아래로 내려 쌓입니까?

사부: 그렇다. 이 우주에는 바로 이런 이치가 있다. 그것

역시 사람을 단속하는 하나의 이치이다. 당신이 업을 짓고 죽었다면 당신의 후대는 업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후대에 복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돈을 아주 많이 벌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 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대에 남겨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는 세간의 일을 아주 중하게 보며 그의 후대를 아주 중하게 본다. 심지어 그가 떠난 다음의 명예마저도 대단히 중하게 보며 존재하지 않는 이름마저도 그는 모두 중하게 본다. 그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업을 쌓을 수 있고 후대에 업을 쌓아줄 수 있다.

제자: 듣기로는, 한 사람이 성불(成佛)하면 구조승천(九祖昇天) 한다는데요?

사부: 우리 어떤 사람이 크게 착한 일(大善事)을 했거나 혹은 관찮게 수련되었다면 아마 부모는 덕분에 모두 초도(超度)되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층차로 초도되는가 하는 것은, 그의 부모 자신의 원래 상황에 근거해야 하며 또 한 우리의 수련상황은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상이 德(덕)을 쌓았으면 자연히 복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연공한다면 조상이 德(덕)을 쌓았다고 말하고, 당신이 부처로 수련되었다면 당신의 부모는 그야말로 큰 德(덕)을 쌓은 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계를 벗어난 사람이 아주 적다. 그는 다만 德(덕)을 쌓았고 좋은 일을 했을 뿐이다. 당신과 같은 이런 아들이 있고 당신과 같은 이런 딸이 있는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는 바로 사람의 心性(썬씽)을 수련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도덕수준의 제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련함에 공이 자라지 않는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짚었고, 이런 문제를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거에 나는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득체험 교류 중에서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 법이 전해지고 나니 우리 사회 정신문명의 확립에 아주 많은 좋은 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말했듯이, 주요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법을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널리 전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며 진정하게 제고토록 하려 한 것이다. 우리 불가(佛家)의 말로 한다면 진정하게 승화되어 원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도덕수준이 제고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내 말은, 이는 사람에게 心性(썬씽)수련을 중요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의 요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 많은 승려를 포함하여, 전업 수련하는 도사도 마찬가지인바, 그는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데, 그는 단지 형식상의 것만 중시할 뿐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아서다.

사람의 心性(썬씽)이 승화되어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데 전혀 제고해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특성이 사람의 心性(썬씽)이 높지 않은데도 승화되어 올라감을

와서 나는 우리 이 장(場)이 대단히 상화(祥和)로운 것을 보았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곳은 정토(淨土)라고 나는 말한다(박수). 동시에 나는 또 우리 여러분이 수련한 성과가 아주 대단한 것을 보았다. 여러분은 모두 제고(提高)와 선(善)을 향한 마음이 있으므로 축하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와 우리 이런 심태(心態)는 모두 완전히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법을 헛되이 배우지 않았고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도 이 대법을 헛되이 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다. 당초 내가 막 베이징에 와서 설법하고 공을 전할 때 제1회 학습반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처럼 많았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제까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법을 전한 것은 1년이며 처음에는 아주 낮은 기공의 형식으로 법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베이징 이곳의 보도원이 이미 이렇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 대법을 더욱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였으며 이 법 속에서 자신을 제고하고 수련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대단히 축하할 만한 일이다. 지금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통계는 몹시 어렵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지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떤 지역은 한 현(縣) 또는 한 도시에서 한두 사람이 배웠으나 나중에는 천여 명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지역이 모두 이런 형세이며 발전이 매우 빠르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조상 역시 德(더)를 쌓은 셈이 된다. 그러나 이로써 부모도 성불(成佛)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려면 수련을 해야 한다. 그는 다만 다른 층차의 천인(天人)이 되어 복을 누릴 따름이다. 무슨 구조승천(九祖昇天)이란 없으며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제자: 어느 날 밤, 꿈에 부모님이 수련하면서 집에서 공양하는 그런 종이를 찢으니 저절로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권고를 듣지 않기에 저는 사부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 오셔서 상황을 말씀하시니 부모님이 즉시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였는데 그 종이라도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또 사부님이 아니셨고 백정 옷을 입고 장터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저는 덩달아 울기 시작했는데요?

사부: 이는 틀림없이 마(魔)이며 이것은 사람을 욕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마의 위패를 태웠고 죽여 버렸는바, 그 뜻은 바로 백정이 살인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뜻이다. 그것도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연화(演化)하여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 왜 오늘날 이러한 마를 이처럼 깨끗이 청리(清理)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내가 사과에 대한 예를 든 것처럼, 인류사회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인류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그러한 동물도 모두 업을 갖고 윤회하고 있는데, 모두 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단히 크

다. 당신은 동물이 수련 등을 안다고만 보지 말라. 인류의 일을 절대 이러한 동물들이 교란하고 주재(主宰)하도록 할 수 없다. 그것들이 이미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위배한 것이다. 대역지마(大逆之魔)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 역시 말법, 말잡시기의 필연이다. 동물이 좀 높은 공으로 수련되면 마땅히 죽여 버려야 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난잡하기 그지없다.

나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치를 고층차에 가서 보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고층차의 대각자가 보기에 인류사회의 이러한 요마귀괴(妖魔鬼怪)들이 모두 뛰쳐나왔는데, 누가 사람 몸(人身)의 것을 갖고자 하면 갖고, 사람을 단속하고자 하면 곧 단속한다. 요마귀괴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병을 봐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병을 보았는가? 요마귀괴가 병을 본다는 것은 그것의 그러한 것을 사람 몸에 넣는 것이 아닌가? 이는 이미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자: 과거에 우리가 발견한 그런 원고(遠古) 시기의 동물에 대해 말한다면?

사부: 오늘날의 동물은 진화해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륙판이 이동하고 부동한 시기의 주기적인 연화(演化)로 인해 물종(物種)이 바뀐 것이다. 만약 우리 오늘의 대륙판이 가라앉고 다시 태평

## 베이징(北京)法輪大法(파룬파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李洪志

1994년 12월 17일

내가 서서 말하면 여러분이 똑똑히 볼 수 있겠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다. 공(功)을 전하는 방법의 많은 일을 모두 처리해야 했기 때문인데, 모두 속인이 그리 잘 알지 못하고 이해(理解)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습반을 중지했다. 이 한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마무리 되었다. 본래는 마무리 한 후, 즉 이번 일을 다 마친 다음 다시 앞으로 공을 전하는 일을 배치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 광저우(廣州) 학습반은, 당시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인데, 신문에도 실렸고 광고도 나갔으며 또 많은 학비까지 받았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중도에 나와, 광저우 수련반을 열기 직전에, 먼저 일부 준비 작업을 하려 베이징에 들렀다.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을 만나려 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다.

과거에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도덕수준은 이미 아주 낮아졌으며 모든 분야에서 정토(淨土) 한 패기를 찾기가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양·인도양·대서양에서 대륙판이 올라온다면 새로운 물종이 존재할 것이며 새로운 물종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륙판이 다시 가라앉는다면 또 새로운 물종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지판(地板)과 저 지판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 수많은 해를 지나 다시 이 지판이 또 바뀐다면, 그럼 그 물종 역시 원래의 물종이 아닌, 더욱 새로운 물종으로 생겨날 것이다. 물종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왔기에, 사람들은 진화(進化)하여 온 것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진화 과정 중 그 과도기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모두 두 개 물종이 각각 달리 존재하는 형식만을 보았을 뿐, 중간의 과도형식의 것은 없다.

제자: 수련하는 사람이 성불(成佛)한 후 어느 신체가 부처로 됩니까? 眞體(쩐티)입니까? 아니면 사부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사부: 과거에 정토종(淨土宗)에서 수련하는 사람, 그는 신체수련을 강구하지 않으며 다만 心性(썬썬) 수행을 중시했다. 특히 가부좌하지 않고 수련하는 그러한 법문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의 불체(佛體)는 그를 인도하는 부처가 연화(演化)해 준다. 그를 인도할 때 직접 하나의 불체를 준다. 그러나 진정하게 가부좌하고 착실히 수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원영(元嬰)을 수련해 낼 수 있다. 또한, 도가와 불가의 일부 특수한 수련방법 중에는 자신을 개변하여 성

명쌍수에 도달하고 또 기타 일부 것들을 수련해 낼 수 있으며, 자신의 主元神(주웬선)이 일체를 주재할 수 있다.

제자: 元神(웬선)은 고에너지물질입니까?

사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元神(웬선)은 가장 미시적(最微觀)이고 가장 미소(最微小)한 물질로, 가장 본원적인 물질로 구성되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특성은 물질의 본원에서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생생세세를 거쳐서도 개변하기가 몹시 어렵다. 하지만 본성은 선량한 것이다.

제자: 그리스도는 그의 그 천국에서 온 사람들을 제도(度化)하러 온 것입니까?

사부: 이 말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 인종, 가장 원시적인 인종은 모두 그들의 그 특정한 공간에서 왔기 때문인데, 그의 거기에는 그의 그곳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제자: 제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우기 전에 꿈속에서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대법을 배우기 전에 나를 본 사람이 아주 많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 몇십 년 전에 나를 알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나를 보았다는데,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 또 점쟁이가 수년 전에 알려주었다는 등등, 이러한 것은 부동한 시

베이징(北京)

法輪大法(파룬따파)

보도원회의에서 하신 건의

李洪志

1994년 12월 17일

해 책임지는 데 입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곧 이만큼 말하겠다.

…… 우리는 토론을 거쳐, 대법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깊어졌을 테고 또 우리의 인식이 일치되었을 것이므로 내 생각에 장래에 수련생에게 일부 일을 해답해 줄 때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아직 우리 몇몇 책임자와 이 일을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단지 단체연공만 하지 말고 특정한 시간을 찾아 단체로 법 공부를 할 수 없겠는가. 우리가 나의 고향에서 선두로 나서서 좀 조직하면 좋겠다. 매 장(章) 매 절(節) 여러분이 읽고 토론해 보라. 학습시간의 안배는 단체연공처럼 고정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더욱 많고 겨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래에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의지할 법(法)이 있게 된다. 우리가 선두에 선다면 전국 각지 보도소에서 아주 좋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전국 각지에서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식제고에 많은 좋은 점이 있기에 이러한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法輪大法(파룬파파) 창춘(長春) 총보도소 녹음

공(時空)의 반영이다.

제자: 제 아이가 스승님을 뵈는 적이 있으며 또 스승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사부: 이 아이의 근기 역시 괜찮은 것으로 아이가 잘못 말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내력(來頭)이 있는 것으로 법을 얻기 위해 온 것이다.

제자: 德(더)·공(功)과 眞(쩐)·善(싼)·忍(런)은 같은 부류의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사부: 眞(쩐)·善(싼)·忍(런)은 일반적인 물질로 인식할 수 없으며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지만 그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는 마치 우리 사람의 元神(웬션)과도 같은데, 당신이 그와 우리 사람의 신체가 무슨 물질로 구성된 것인지 말해 보라. 마치 방금 내가 제기한 그 문제처럼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이든 모두 물체이며 이런 특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역시 법의 체현이다. 그러나 德(더)와 공(功)은 물질형식으로 체현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 같은 부류의 물질이 아니면서도 또한 모두 우주 특성 眞(쩐)·善(싼)·忍(런)에 동화된 것이다.

제자: 파·생강·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부: 우리가 오늘날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전업수련 중에서 장래의 승려는 이것을 계(戒)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하게 여러분과 단체적으로 가부좌하고 실속 있게 수련하는 사람은 역시 먹을 수 없다. 과거에는 그것이 사람의 수련을 교란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파·생강·마늘은 사람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먹고 많이 먹으면 인이 박이게 마련이다. 먹지 않으면 생각나게 되는데 집착심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 그것을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익힌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냄새가 없으며 파 양념을 한 것은 괜찮다. 우리는 실제적인 의의에서 보아야 한다. 그 해 석가모니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의 수련을 교란하고 방출하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 입정(入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열 명, 여덟 명의 승려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입정(入靜)하여 가부좌했는데, 이 냄새가 풍기면 여러 사람은 누구도 입정할 수가 없었다. 가부좌하고 실속 있게 수련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에 이러한 것을 끊음을 아주 엄숙하게 여겼다.

제자: 德(더)·공(功)과 眞(쩐)·善(싼)·忍(런)은 같은 부류의 물질입니까?

사부: 德(더)는 일종 백색 물질이며 일종 특수한 물질이

가려고 할 때 많은 각자(覺者)들이 모두 나에게 말했다. “이 수련반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인즉 속인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말했다는 것이다. 내 말은, 이 법에 따라 배우고 오로지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말한 이 법은 또 단지나의 이 한 문(門) 중의 것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아주 큰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은 과거의 공(功)을 전하던 일과는 하는 일이 같지 않다. 사람들은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는데 석가모니는 동물마저도 그 속에 포함했다. 석가모니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했는데, 그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체 생명에 대해 자비를 베풀고자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사람을 제도함에 우리는 왜 여전히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학습반에 들어오는 데도 선택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일체 일은 당초와 모두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나쁘게 변해 청리(淸理)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남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됐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더 강조하지 않겠다. 한 마디 말하자면 우리 이 법에 대해 책임지며 당신 개인에 대



사람에서 보면 역시 더없이 높고 더없이 아름다운 큰 복이다. 일반 기공 중에서나 부체 공, 사법(邪法) 중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쪽지를 다 전했다. 내가 오늘 해답한 이런 문제들은, 주로 우리 보도원과 골간(骨幹)이 제출한 것을 말한 것이다. 물론 우리 어떤 수련생은 더욱이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했거나 혹은 학습반에 단 한 차례 참가한 것으로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인데도 왔다. 이는 당신이 이 법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수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즉 당신은 아직도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주 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니 당신은 아마 생각이 있을 것이고 아직 心性(심성)이 높지 못한 탓으로 아마 이러쿵저러쿵할 것이며, 왔지만 또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걱정인데 회의(懷疑)가 생기면 당신의 장래를 망치게 된다. 어쨌든, 들은 후에 믿기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로 삼아 듣도록 하고 절대 어떤 저촉(抵觸)하는 정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한 이러한 법은 주로 우리 이런 보도원, 골간에 한 것으로, 장래에 당신들이 대법 일을 할 때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는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수련생이 제기하면 해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일부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실 내가 말했듯이, 이 보도원회의를 열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예컨대 내가 제남학습반에서 강의를 끝마치고

다. 업력 역시 일종 특수한 물질이다. 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일종 승화된 德(더)의 물질로서 또 우주의 기타 물질과 섞여 형성된 것이다. 眞(쩐)·善(싼)·忍(런)은 법이고 일종 특성으로서 일반적인 물질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는 초물질(超物質)이다.

제자: 불괴지체(不壞之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나면 곧 불괴지체다. 불체(佛體)가 나쁘게(壞)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우주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좋은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우주가 나쁘게 되지 않는다면 그도 나빠지지 않는다.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최종에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가는 겁니까?

사부: 나의 法輪世界(파룬쓰제)는 다 받아들여 놓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진정하게 정과를 얻고 원만에 이른 사람만이 비로소 갈 수 있다.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은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간다고 한다면, 현재 사람이 몇억이나 되지 않는가! 장래에는 대법을 배우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생생세세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수련할 텐데, 모두 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간다면 그건 받아들여 놓지 못할 것이다. 수련은 하였으나 원만하지 못해 가게 되는 고층공간 역시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수련생 대부분은 서로

다른 고층차에서 온 것으로 법을 얻은 후 자신의 원래 세계로 간다.

제자: 제 외손녀는 다섯 살인데 학습반에 두 번 참가했습니다. 꿈속에서 늘 일어나 연공하며 어른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 데 정상입니까? 그 아이는 또 늘 스승님께서 글자를 가르치시고 회화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며 스승님께서 창공과 꽃구름 위에 계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요?

사부: 연마하는 것이 法輪大法(파룬파파)라면 정상적이다. 근기가 괜찮은 어린이가 아닌가. 절대 아이에게 난잡한 공을 배우지 말도록 해야 하며 아이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아이는 모두 법을 얻으러 온 것으로 절대 아이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다.

제자: 신수련생을 받아들이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부: 없다. 연마할 수 있으면 연마하도록 하라. 물론 두 가지 병은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응당 지적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제출한 것인데, 위중한 환자는 업력이 너무 커서 수련할 수 없고, 정신병 환자는 사상업력이 너무나 커서 主元神(주웬선)이 똑똑하지 못하므로 수련할 수 없다.

제자: 속인 중에서 하는 수련은 체내 분자구조를 개변시키

도 축소된다.

제자: 근 몇 개월간, 저는 꿈속에서 늘 주위의 일부 친지들과 함께 아주 미끄러운 진창 속에서 바빠 보냈습니다.

사부: 이것이 바로 사람은 속인 중에 있다는 것이며 남이 보건대 인류는 바로 흙장난을 하고 있다.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여 정과를 얻었다면 반드시 本體(번티)를 갖고 가는 것입니까?

사부: 우리 이 법문이 요구하는 원만은 本體(번티)를 갖고 가는 것이다. 本體(번티)를 가지지 못하고, 이 신체가 이런 형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수련하면 거의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로지 과위(果位)에 진입하여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나기만 하면 당신의 신체는 이미 성취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도달하였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다. 이는 신체 일부분이 잠겨 있어 일부 속박을 받으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함에 따라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해야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원인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원만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만 다른 층차 중에서 천인[天人(神仙-신선)]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적다. 사실 이것도 일반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종교가 하는 두 가지 일이다. 우리가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것 역시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교형식이 없다. 장래에는 전업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이 한 걸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미 대법을 수련하는 화상이 있다. 어쨌든 우리 이 법은 사회에 유익하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사회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며 정부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해서나 속인사회에 대해서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모두 해로운 점이 없으며 다만 좋은 점만이 있을 뿐이다.

제자: 저는 가부좌할 때 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자신이 아주 작게 변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부: 이것도 정상적이다. 이는 元神(웬션)이 아주 작기 때문인데 또 아주 크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연공할 때 신체는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선(頂天立地) 것 같은 감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변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모두 정상적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수련하는 사람이 만약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층차가 떨어져 내린 것으로서, 신체의 용량

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出世間法(추쓰젠파)는 체내 분자구조를 개변시키는 것입니까?

사부: 당신이 수련 중에서 개변되지 않고 出世間法(추쓰젠파) 후라면 당신은 또 어떻게 개변될 수 있겠는가? 世間法(쓰젠파) 중에서도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개변되고 있으며 제고되고 있다.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날 때 기본적으로 이미 개변이 전부 끝난다.

제자: 텔레비전 연속극 ‘달마 이야기’를 수련생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부: 이걸 괜찮다. 수련생은 그것을 이야기로 삼아 볼 것이며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배우지 않을 것이다. 바로 불교의 어느 화상(和尚)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설(說)하든 그 또한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걸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반을 열 때 이미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선종(禪宗) 법문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또 단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조(六祖) 혜능 거기까지 와서 없어졌다. 몇백 년 가지 않아 그것은 진작 없어졌으며 남겨놓은 것은 역사뿐이다. 당신이 보라. 그 선종의 화상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무슨 아미타불경도 꺼내보는데, 그에게는 선종의 것이 없다. 선종의 법은 세간에서 이미 없어졌다. 사실 말법시기에는 단지 선종의 법만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모두 없어진다.

제자: 어떤 사람은 학습반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도 연공을 하고, 책과法輪(파룬) 배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연마하지 않는데 책과 배지를 회수해야 합니까?

사부: 그가 사갔으면 그만인 것으로 고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돈으로 샀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무슨 행정관리 방법이 없다. 당초에 나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수련생과 제자들의 요구로 내놓았는바, 이럴 수밖에 없다.

제자: ‘터우딩빠오룬(頭頂抱輪)’을 할 때면 늘 머리에 무거운 감이 있고 들지 못하겠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머리가 무겁다고 하여 꼭 나쁜 일은 아니다. 공기둥을 수련해 났어도 역시 무거운 감각이 있다. 만약 위에 빛으로 된 큰 구(太光球)가 나왔다면 그것도 당신을 짓누를 것이며, 만약 그 위에 부처가 앉아 있다면 당신을 더욱 짓누를 것이다. 위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라. 그 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모두 좋은 일이다. 사람의 정수리(頭頂)에는 아주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기를 연마하는데도 또 하나의 큰 기의 기둥이 나타날 수 있잖은가.

제자: 꿈속에서 고탈을 겪을 때의 대응이 청성(淸醒)할 때보다 더 좋았는데 副元神(푸웬션)이 아닙니까?

사부: 그건 물론 아주 괜찮다. 副元神(푸웬션)이 아니다. 副元神(푸웬션)이 하는 일은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하므로 당신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제자: 정백체(淨白體) 이상의 층차로 수련되었을 때, 몸에는 차고, 덥고, 저리고 부풀어나는 등의 반응이 있습니까?

사부: 역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동(不同)한 층차의 부동(不同)한 것이 당신 몸에 체현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태가 갈수록 적어지긴 하지만 무엇이든 다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겠다. 태상노군(太上老君)은 이런 한마디 말을 했고, 도가 서적 중에도 이런 한마디 말이 있다. 수련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는 속인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제자:法輪大法(파룬따파)와 종교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사부: 역사상 우리는 종교로 들어간 적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는바,法輪大法(파룬따파)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목적이란, 한 면은 수련하는 것이고, 한 면은 사람을 도화(度化)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끔 하며 인간 세상에 도덕이 오래 존재하도록